

KIA 불펜 ‘필승조’ 든든하네

심동섭-박지훈-한승혁-임창용 4와 3분의 1이닝 무실점
프로야구 시범경기 삼성에 5-1 승리 ... 선발 김윤동 쾌투

‘호랑이 군단’의 필승 마운드가 성공적으로 시범 가동됐다.

KIA 타이거즈가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범경기에서 5-1 승을 거뒀다.

지난 한 주 전체적인 선수들의 테스트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경기는 ‘정규시즌 대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기는 상황, 지는 상황에 따라서 경기 운영을 달리하겠다”던 김기태 감독의 방침에 따라 이날 마운드에는 선발 김윤동을 빼고 10명의 투수가 대거됐다.

0-0으로 맞선 4회 5번 나지완이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했다. 이범호가 유격수 플라이, 서동욱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김주형의 안타에 이어 이흥구의 볼넷으로 만루가 채워졌다. 버나디나가 볼넷을 골라내면서 1-0. 김선빈의 2타점 적시타와 폭투를 묶어 4-0까지 점수가 벌어졌다.

4회까지 무실점을 막은 선발 김윤동이 5회 선두타자 백상원에 2루타를 허용한 뒤 성의준의 적시타로 실점을 기록했다. 박해민의 포수 파울 플라이 아웃에 이어 삼진으로 투 아웃을 잡은 김윤동은 약속된 80개의 투구수에 맞춰 77개를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3점 차의 승부가 전개되자 김기태 감독은 필승조를 투입하며 실전 모드로 경기를 풀어갔다.

좌완 심동섭이 불펜의 스타트를 끊었다. 5회 2사2루에서 등판한 심동섭은 좌타자 구자욱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이닝을 종료했다. 심동섭은 6회 러프를 3루수 땅볼로 처리한 뒤 좌타자 이승엽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임무를 완수했다.

다음은 돌아온 필승조 박지훈의 몫이었다.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냈지만 1루수 땅볼로 6회를 마무리한 박지훈은 7회 다시 선두타자 볼넷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후 세 타자를 범타로 처리하면서 2루를 내주지는 않았다.

8회 승리 바통을 이어받은 이는 한승혁이었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부터 7이닝 1피안타의 무결점 투구를 하고 있는 한승혁은 이번에도 1이닝 퍼펙트로 8회를 정리했다. 전광판에는 최고 156km가 찍히기도 했다. 5-1로 앞선 9회에는 마무리 임창용이 출격했다. 임창용은 2사에서 백상원에 게 우전 안타를 허용했지만 유격수 땅볼로 승리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채우며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기태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김윤동이 선발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타자들도 기회에서 집중력 있게 잡았다”고 총평했다.

김진우의 부상으로 선발 경쟁의 새로운 축이 된 김윤동의 성적은 4.2이닝 4피안타 2볼넷 4탈삼진 1실점.

김윤동은 “체인지업을 연습했는데 잘 들어갔다. 적극적으로 승부를 했는데 운도 많이 따른 것 같다”며 “이닝이 길어지면 힘이 든다 이런 게 아니라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위기가 오면 흔들리는 것도 있는데 보완해야 할 부분 잘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승조를 가동해 승리를 만든 KIA는 투수진의 연투 능력 등을 테스트하며 개막전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57km ‘팡팡’

한승혁 “지금, 공이 너무 좋아 고민이네요”

KIA 한승혁의 ‘행복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스프링캠프 MVP 한승혁은 시범경기에서도 그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 14일 두산과의 첫 경기에서 전광판에 157km를 기록하는 등 한승혁은 매서운 강속구와 예리한 포크볼을 앞세워 1이닝 1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을 선보였다.

17일 kt전에서 1이닝을 삼자범퇴로 막은 그는 21일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5-1로 앞서 8회 등판해 역시 퍼펙트 행진을 이어갔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까지 더하면 8이닝 무실점 행진이다. 그리고 8이닝을 처리하는 동안 내보낸 주자는 단 한 명이다.

위력적인 피칭에 꾸준함까지 더해 KIA 불펜의 핵심 선수로 등장했지만 그에게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과가 너무 좋다 보니 “주자 있는 상황에서 공을 던져봐야 하는데...”라는 ‘행복한 고민’이다.

한승혁은 “주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공을 던지는 것과 운영하는 게 다르다”며 “억지로 중간 중간 셋업 포지션으로 던져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연투와 긴 이닝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

한승혁은 “캠프에서 2이닝을 던져보기는 했다. 연투 때 몸 상태와 컨디션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쁜 결과도 나오기도 할 것이다. 컨디션이 좋지 않고 위기가 왔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구기록 강습회 성료

나이·직업·주소 달라도 야구에 대한 열정은 하나

나이와 직업, 사는 곳은 달라도 야구에 대한 열정만은 하나였다.

지난 주말 조선이공대학교 한 강의실은 공부 열기로 뜨거웠다. 진지한 표정으로 야구 중계를 보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적노라 분주했던 이들은 야구 기록 강습회에 참가한 ‘야구팬’들이었다. 다양한 사연의 이들은 주말 휴식도 반납하고 학생이 됐다.

나영도(32)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자리를 지켰다. 지난 강습회 때는 아버지와 짝궁이 되어 공부했던 그는 이번에는 큰아버지 나현업(62)씨와 나란히 앉아 야구 깊이를 더했다.

엄마와 아들, 아빠와 아들이 함께 한 또 다른 가족도 눈에 띄었다. KIA의 열성팬인 ‘엄마’ 김은영(45)씨는 아들 김지광(11)과 함께 광양에서 고향인 광주를 찾았다.

김 씨는 “결혼 전에 사적인 야구 기록을 하기도 하는 등 관심이 많았다. 예전에는 서울에 가야 기록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광주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가하게 됐다. 아이가 야구를 좋아하고 궁금해해서 같이 참가하게 됐다”며 “그동안 기록을 결합해 식으로 알았는데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집에 가는 길에 아이와 야구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빠’ 안수영(56)씨에게도 야구를 통해 아들 경민(24)씨와 부자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안씨는 “부자간에 야구를 좋아하는 다. 평소엔 누나만 좋아한다고 아들이 서운해했는데 이를 동안 아들과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같이 가지고 했을 때 격정도 했는데 전문적인 부분도 배우고 가족 간의 정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현장 실습에도 참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나주, 화순 전남 지역은 물론 천안, 서울 등 먼 길을 달려온 이들도 있었다.

고양에서 광주를 찾은 안두리(32·여)씨는 “친구들을 따라서 처음 야구장을 갔었다. 처음에는 야구를 몰라서 경기장에서 즐기기도 했다. 지금도 응원하는 재미로 야구를 보기는 하는데 더 많이 알고 싶었다”며 “광주에 친구들이 있기도 해서 즐겁게 다녀갔다. 친구들과 나중엔 결혼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야구도 하지는 이야기를 했다. 그 소원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야구 꿈나무’인 무등중 김복원(14), 김미리(13)도 그라운드가 아닌 강의실에서 야구를 배웠다.

한편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이번 강습회는 광주광역시야구협회(GBA·회장 나훈)와 한국야구기록연구회(KBR·회장 김재요)의 주최로 열렸으며 광주일보, CMB, KIA 타이거즈, 조선이공대학교가 후원했다.

/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여자핸드볼, 일본과 아시아선수권 우승 다름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일본과 아시아선수권대회 정상에 놓고 맞붙는다.

강재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22일 경기도 수원 서수원월보체육관에서 제16회 아시아선수권대회 결승전 일본과 경기를 치른다.

한국 여자핸드볼은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대표팀을 4강으로 이끌었던 강재원 감독에게 다시 지휘봉을 맡기고 대표팀 평균 연령도 24.6세로 젊게 됐다.

특히 대표 선발 과정에서 평가전을 통한 경기력 점검, 체격과 기초 및 전문 체력 테스트를 도입하는 등 객관성을 강화하며 분위기가 쇄신에 나섰다.

이 대회에 앞서 열린 15차례 아시아선수권에서 12번이나 정상에 오른 아시아 최강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3연승을 거뒀고 20일 열린 카자흐스탄과 준결승에서도 41-20으로 크게 이겼다.

22일 결승 상대는 일본으로 정해졌다. 일본은 2004년 제10회 대회에서 한 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으나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보다 한 수 아래다.

/연합뉴스



슬러거, 박병호가 돌아왔다

ML 시범경기 4호 홈런

타율도 0.394 고공행진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의 환골탈태한 모습에 미국 언론도 감탄사를 쏟아냈다.

박병호는 21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시범경기에서 7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장해 0-0으로 맞선 5회초 선제 2점포를 터트렸다.

박병호는 상대 좌완 선발 프란시스코 리리아노의 2구째 시속 92마일(약 148km) 직구를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훌쩍 넘겼다. 시범경기 들어 벌써 4번째 안타다. 6회초에는 볼넷도 추가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박병호는 시즌 초반 파우를 입증했으나 곧 약점을 드러내고 추락을 거듭했다. 특히 빠른 공에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하고 타율 0.191, 12홈런의 초라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설상가상으로 미네소타 구단은 올해 스프링캠프 직전 박병호를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했다. 마이너리그로 계약이 이관된 박병호는 이 때문에 스프링캠프 초청선수 자격으로 시범경기를 뛰고 있다.

박병호의 시범경기 성적은 타율 0.394(33타수 13안타)에 장타율 0.818, 4홈런, 8타점에 이른다. 안타 13개 중 6개가 장타다. 선구안도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졌다.

미국 폭스스포츠는 경기 후 “박병호가 돌아왔다. 메이저리그 로스터에서 탈락한 지 한 달 만에 파우를 보여주고 있다”며 “미네소타가 지난해 (포스팅 비용으로) 1285만 달러를 들여 그를 영입했을 때 원했던 바로 그 파워”라고 했다.

이어 “박병호는 지난해 빅리그 투수들에게 압도당한 듯 보였다. 215타수에서 80삼진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금은 5볼넷 9삼진을 기록 중”이라고 소개했다.

폴 몰리타 감독도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닷컴과 인터뷰에서 “박병호가 이번 캠프를 잘 소화하고 있다. 그는 편안해 보인다”며 “스트라이크에 스윙하고, 좋은 스윙을 많이 한다”고 호평했다.

/연합뉴스